

# '처벌 대신 미술체험' 청소년 작품 전시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26일 전북대서 작품 전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정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가 2기 과정을 마치고 오는 26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예술대학과 전주지방검찰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상위원회 전주지협회의가 주관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처벌 대신 미술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이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해 지난 9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1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했다.

예술치유는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위해 자신의 범죄를 되짚어보게 함으로써 자기성찰에 이르게 하는 것

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3시간씩 학생들과 강사진들은 전북대 강의실에 모였다. 1기 과정이 물성을 다루는 조각 중심의 미술 프로그램을 통한 신체적 에너지 발산과 스트레스 해소에 목적이 맞춰졌다면, 2기에서는 '나는 비행 청소년이다'라는 전시 주제를 미리 설정하고 일상과 감정 외 범죄 사실을 글과 그림, 조형작품으로 풀어내는 자기고백적 미술창작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강사진에 의하면 "학생들이 오늘은 비행 청소년이지만, 내일은 비행 청소년이 아닐까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각인하며 창작한 결과물을 통해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한 임혁용 전북대 예술대학장은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마음의 치유를 돕는 소중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서를 순화하는데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옥죄어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예술로서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J.A.T' 청소년 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홍성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획한 전북대학교 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돼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 소핑관광 홍보 서포터즈 1기 성과 공유회'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21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2022 전북 소핑관광 홍보 서포터즈 1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 전북 소핑관광 홍보 서포터즈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 11명과 국내 대학생 2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 MZ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각으로 '전통·문화 융합형 소핑관광 목적지, 전라북도'를 국내·외에 알렸다.

이날 진행된 성과 공유회는 서포터즈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으로, 팀별 홍보 활동 결과 발표, 우수 서포터즈 시상, 서포터즈 프로젝트 홍보 활동 아카이빙 영상 시사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발된 제1기 소핑관광 서포터즈들은 지난 3개월 간 전북 소핑워크, 한옥마을 연계 소규모 이벤트(전북 소핑 Day), 소핑관광 사업 대상지(책리단길 등) 홍보 미션 활동을 수행, 이들이 제작·배포한 콘텐츠는 총 288건이다.

서포터즈는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팀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재단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전북 소핑관광 브랜드를 알리는데 우수한 성과를 선보인 BEST 홍보활동자 및 BEST 후기작성자에게 각각 1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시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관광마케팅팀(063-230-749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작가회의, 이광웅 시인 30주기 추모식 열어

전북작가회의는 22일 군산 금강하구 이광웅 시비 앞에서 이광웅 시인의 30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자연 회장의 헌화로 시작된 이날 추모식은 이광웅 시인의 육성으로 듣는 시 낭송, 추모시 낭송, 추모노래, 동료 문학인에게 듣는 시인 이야기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시인이 근무한 군산제일고등학교와 시인이 즐겨 찾았던 제보산장, 시인이 잠들어 있던 군산교도소 옆 옛 무덤가 등을 둘러봤다.

이날 추모식은 강형철·김근혜·김병용·김성철·김수에·김영춘·문신·박태건·복효근·신귀백·안준철·이봉환·정도상·정동철·정철성·진영심·최기우·한상준 등 문학인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광웅 시인은 정치권력과의 충돌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운명으로 겪은 부당



한 역사를 문학의 언어로 담아낸 전라북도의 자랑스러운 문학 자산"이라며, 시인의 삶과 문학을 반드시 기억하고 널리 알리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익산 출신인 이광웅 시인은 시집 '대발', '목숨을 걸고', '수선화'를 냈으며, 제5공화국의 대표적인 응공 조각 사건인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로 2008년에 명예를 되찾았다.

/장은성 기자

## '동·동·동화 축제' 남원서 열린다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관광협회가 주관하여 동·동·동화(冬·童·童話) 축제를 개최한다.

관한루원 북문 남원에촌 및 동문 예루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어른들에게는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주고 어린이들에게는 겨울 축제의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동·동화(冬·童·童話) 축제는 '겨울(冬), 아이(童), 이야기(童話)'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도란도란 화롯불 체험, 얼음썰매장 운영을 비롯한 미술쇼, 버스킹, 동화 OST 등의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가족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한편 얼음썰매장은 25일 축제가 종료되어도 내년 1월 8일까지 운영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태권도원, 드라마 촬영지 '각광'

tV·SBS 등 드라마 촬영 이어져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이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며 태권도 성지이자 관광지로 명성을 더할 전망이다.

70만평의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한옥, 자연환경 등이 어우러져 있는 태권도원은 현대극과 사극을 비롯해 스포츠, 멜로 등 어떤 주제의 드라마와도 어울린다는 특별함이 있어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촬영 섭외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태권도원은 계절마다 달리 피는 꽃이 어우러진 정경 무주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2016년 BTS가 찾기도 했던 'T1경기장'과 다양한 규모의 수련실·회의실이 있는 '도약센터'에서는 대규모 경기와 공연·세미나, 사무공간 등의 배경 최적지로, AR·VR을 활용한 태권도체험이 가능한 '체험관 YAP', 200미터 길이의 태권도 복합체험시설인 '플레이원' 등은 특별한 첨단 놀이시설로 방송 관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해발 981미터의 백운산을 배경으로 전통 관영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태권전과 명인관에서는 사극 촬영 등에 필요한 현장 답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해발 3백여미터의 태권도원 입구와 달리 태권전·명인



관에서부터 전망대, 백운산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은 고도와 온도 차로 인해 눈과 안개를 자주 볼 수 있어 신비로움을 더한 영상미까지 연출할 수 있다.

올해 태권도와 빙상, 스포츠인권을 주제로 정우, 이유미, 권을 등이 출연한 tVN 드라마 '멘탈코치 제갈길'에서는 태권도원을 선수촌으로 소개하며 16회 전 편에 노출되었다. 또한 내년 상반기 방영을 예정하고 있는 SBS 드라마 촬영도 예정되어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음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은 도시와 다른 대자연의 매력과 함께 현대와 전통을 모두 담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며 "국기 태권도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앞으로 드라마, 방송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익산마을학 시민토론회' 개최

'해방과 한국전쟁의 유산' 황등 정착촌 등 마을 역사 공유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도시와 마을을 이룬 시민들의 역사를 공유하는 '익산마을학'으로 문화도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센터는 '익산문화도시의 미래를 묻는다'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주제로 '익산문화도시와 익산마을학 시민토론회'를 22일 익산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익산 마을 역사 △해방과 한국전쟁의 유산' 황등 정착촌사람들 △익산의 뿌리와 선비정신의 분향인 금마 △왕궁면 진천송씨 우산종중 세거 장중마을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 강연의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 교수는 '익산의 도시역사와 마을의 역사'라는 주제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익산 지명의 변화와 관련된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파악했다.

익산에 속해있는 전통마을의 형성과정 등을 통해 지역연구 특히 면지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귀백 익산근대문화연구소장은 익산 문화도시 역사풍어터 너른 품'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발발 후 형성된 황등 정착촌에 대한 역사와 배경, 지역 근현대사 복원으로 이어지는 활동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문화와 마한백제연구소 교수는 '금마'를 중심으로 기록과 유산이라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익산의 뿌리를 확인했으며, 양국 소세양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선비정신의 분향인 익산이라는 또 다른 관점의 역사를 제시했다.

또한, 임흥락 익산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은 왕궁면 진천 송씨의 입향 과정과 표용 송영구 생애의 대해 공유했으며, 망모당의 건립배경과 그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익산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현을 시장은 "전통마을과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민들과 같이 수행하고 공유하며 익산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아 익산이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